



폭우에 소용없는 '손수건 우산'

29일 오후 광주시 서구 차평동 김대중컨벤션 센터 부근 길에서 우산을 준비하지 못한 채 갑작스럽게 쏟아진 폭우를 만난 학생들이 손수건 등으로 머리를 가리며 귀가를 재촉하고 있다. 이날 비와 낙뢰로 인해 광주 시내 곳곳에서 신호등 점멸기 고장 등 사고도 잇따랐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광주 폴리텍대학 취업률 89% 최고

3년 연속 호남권 1위... 동신대 66.7% 호남대 57.6% 상위권

광주지역 대학(전문대·4년제·대학원) 취업률이 전국 평균에 못 미치는 반면 전남지역은 평균을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동신대는 광주·전남지역 졸업생 1000명 이상 4년제 대학 중 취업률 1위, 조선대는 졸업생 3000명 이상 대학 전국 15위에 올랐다. 또 한국폴리텍대학 광주캠퍼스의 취업률은 89.2%로 호남권 전문대학 중 1위를, 목포해양대(84.8%)는 졸업생 1000명 미만 4년제 대학 가운데 전국 최고를 차지했다. 교육부는 29일 한국교육개발원에서 조사한 '2013년 고등교육기관 졸업자 건강보험DB연계 취업통계' 결과를 발표했다. 전국 취업자는 28만6896명으로

59.3%의 취업률을 기록, 지난해 대비 0.2%포인트가 하락했다. 지역별 취업률에서는 울산이 64.8%(취업자 수 3876명)로 가장 높았고 인천(7740명), 대전(1만5293명)이 63.9%로 뒤를 이었다. 전남은 59.9%(9019명)로 전국 평균보다 약간 높았으나 광주는 58.1%(1만1455명)로 전국 평균에 비해 1.2%포인트나 낮았다. 광주보다 취업률이 낮은 지역은 세종(50.3%·1818명), 충북(57.0%·1만1851명), 경기(57.9%·5만146명) 등 세 곳뿐이다. 4년제 학교별 취업률에서는 동신대가 66.7%의 취업률을 기록하며 졸업생 1000명 이상 지역 대학 중 1위를 기록했다. 호남대가 57.6%로 뒤를 이었고 광주대(57.0%), 조선대(52.

6%), 순천대(49.1%), 전남대(47.5%), 목포대(45.3%) 순이다. 이 중 동신대는 지난 2009년부터 2011년까지 3년 연속 졸업생 1000명 이상 1위를 기록한 바 있으며, 올해 다시 이 분야 1위 타이틀을 되찾았다. 또한 한국폴리텍 광주캠퍼스의 취업률은 3년 연속 호남권 1위를 뿐만 아니라 대다수 대학의 취업률이 하락한 상황에서도 지난해보다 1.2%포인트나 올라 눈길을 끌었다. 이번 통계는 올해 6월 1일 기준으로 전국 전문대학, 대학, 교육대학, 산업대학, 각종학교, 기능대학, 일반대학원의 올해 2월 졸업자와 지난해 8월 졸업자를 대상으로 취업 등 졸업 후 상황을 조사한 결과다. /채희중기자 chae@kwangju.co.kr

아동학대 어린이집 폐쇄조치도 가능

보건복지부 개정령 입법예고

어린이집에서 아이를 학대할 경우 심각성에 따라 시설 폐쇄까지 할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아동학대가 발생한 어린이집 시설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신설한 영유아보육법 시행

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고 29일 밝혔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아동학대로 아이가 목숨을 잃거나 뇌사 등에 이르게 하는 손해를 입은 경우 시설을 폐쇄할 수 있다. 영유아의 신체·정신에 중대한 손해를 끼쳤다고 판단되면 1년

간 운영정지 처분을 내리며 2번 반복되면 시설폐쇄 처분을 내린다. 이외에 단순 아동학대가 발생하면 처음에는 3개월간 어린이집 운영을 정지하고, 2차 발생 시 6개월간 정지, 위반이 3번째 발생하면 시설을 폐쇄하도록 했다. 학대의 심각성 여부는 지방자치단체가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조언과 죄질 등을 고려해 판단한다. /연합뉴스

줄기세포로 '미니 인간 뇌' 만들었다

오스트리아 연구팀... 뇌 질환 연구 기대

오스트리아 연구팀이 줄기세포로 미니 인간 뇌를 만드는 데 성공했다. 오스트리아 과학원 분자생명공학연구소의 위르겐 크노블리히 박사가 이끄는 연구팀은 배아줄기세포와 유도만능줄기세포(IPS)로 9주가 지난 태아의 뇌와 크기가 같은 완두콩만한 미니 인간 뇌를 만들어냈다고 영국의 BBC뉴스와 헬스데이 뉴스가 28일 보도했다. 지극히 초기 발달단계에 해당 하는 것이긴 하지만 삼리만상 그 어느 것보다 복잡한 구조를 지닌 인간의 뇌를 줄기세포로 만들어 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연구팀은 이 초기단계의 뇌를

2개월만에 4mm 크기까지 자라게 했다. 이 미니 뇌는 9주가 지난 태아의 뇌에서 볼 수 있는 것과 같은 특수 부위들을 대부분 가지고 있었다. 미니 뇌의 각 조직에서 나타나는 유전자 발현을 분석한 결과 배측피질, 전전두피질, 전뇌, 배측전뇌, 해마, 맥락열기, 미성숙 망막 등이 구분되어 존재한다는 사실을 연구팀은 확인할 수 있었다. 이 미니 뇌는 뇌의 초기 발달 모형으로 뇌 발달 과정에서 발생하는 결함을 연구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크노블리히 박사는 말했다. /연합뉴스

백기완씨 무죄 판결

'긴급조치 위반' 39년만에

고(故) 장준하 선생과 함께 유신헌법에 반대하다 긴급조치 1호의 첫 번째 위반자로 체포돼 실형을 선고받았던 백기완 통일문제연구소장이 39년 만에 무죄 판결을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0부(권기훈 부장판사)는 29일 백 소장에 대한 재심에서 "긴급조치 1호가 애초부터 위헌이고 무효"라며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무

죄를 선고했다. 백 소장은 장 선생과 함께 '개헌 100만인 선언'에 나서는 등 유신헌법 개헌의 필요성을 주장한 혐의로 기소돼 1974년 비상보통군법회의에서 징역 15년과 자격정지 15년을 선고받고 항소해 그해 3월 비상고등군법회의에서 징역 12년과 자격정지 12년을 선고받았다. 백 소장과 함께 기소돼 징역 15년에 자격정지 15년의 판결을 받았던 장 선생은 유족의 재심 청구로 지난 2월 무죄 확정 판결을 받았다. /연합뉴스

오늘 날씨 (Today's Weather) section including a map of Korea with weather icons for various cities, a table of precipitation forecasts for different regions, and a 5-day weather outlook.

분실인가 도난인가 (Lost or Stolen?) section discussing the issue of food waste disposal fees and the impact of QR code-based identification systems.

Large advertisement for Hanlim Pharmaceutical (한림제약) featuring 'Encl' (엔클) and 'Trin' (트린) nasal sprays. The ad includes large stylized text for '씻코' (Wash) and '뽕코' (Pung), along with product images and detailed text about their effectiveness against allergies and infections.